

설교자 회의 (20240119)

1. 본문: 창세기 32:24~32절

제목: 막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

대지 1. 찾아오심

2. 축복하심

한줄 정리 “막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은 야곱의 전 인생을 인도하시고, 막다른 길에서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축복하셨다”

연구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었던 야곱은 결국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삼촌의 집으로 피신하고 그곳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 20년 동안 보수 없이 일을 합니다. 마지막 6년은 보수를 받아 일을 하여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외삼촌과 그 자식들에게 미움을 받아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자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야 할 정든 고향에 더 무서운 적인 형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20년이 흘러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가 자신에 대한 복수심이 누그러져서 호의롭게 받아줄지 아니면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2:3~6절에 보면 사자를 에서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환영 인원으로는 너무 많습니다.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그리고 21절에 “그 예물은 그 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4절에서 “야곱은 이제 모두 앞서 보내고 자식만 혼자 남아있습니다.”

이 흐름대로 추리해보면 야곱은 이 밤에 고민을 하며, 지금 어려운 상황을 어떤 방법을 써서 기사 회생할 수 있을지 묘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해보려는 시도를 밤에 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¹⁾ 이렇게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누군가가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²⁾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씨름을 건 것이지, 야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야곱은 당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판정도 싸움을 건 쪽에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패배의 선언도 씨름을 건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주도권을 빼앗긴 적이 없는데, 오늘 야곱은 그 주도

1) NICOT 창세기2 p.405

2) 야곱과 아들들 박영선 p.98

권을 처음으로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야곱은 타고난 사기꾼이었고, 하나님께 계속 대항했고, 거역했고, 고집 부렸습니다. 얼마 만감이었나면 하나님과 겨뤘고,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려고 간섭하셨으나, 기어코 버텨 말을 안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표현’은 ‘그의 의도가 좌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건 씨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샌다는 이유로 그냥 가려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고백이 갖는 의미는 그의 인생에서 무척이나 소중한 고백입니다. 왜냐면 자신의 방법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어찌면 처음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나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여기서 위기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할 힘이 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자기도 모르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은 보조수단이었을 뿐이지만, 살아오면서 인간이 갖는 본능적인 목표와 욕심들이 좌절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워가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목적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결과와 내용이 되어 거기에 행복과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생애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찾아와 **씨름을 거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면 허벅지 관절을 쳐 행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작성한 설교 원고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 설교 원고를 읽어보면 도통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구나,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를 압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보는 눈과 그것을 해석하는 나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읽어보니 그것이 보인다는 것은 나를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처럼 나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심으로, 씨름을 거심으로, 적극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이는 우리의 인생에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들겨 맞기 전에 돌아서라 이런 충고나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발자국 더 나아가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보조 수단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유일한 복의 근원이요, 선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그래서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더욱 우리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 본문: 창세기 41:25~38절

제목: 하나님의 큰일(1)

대지 1. 바로의 꿈

2. 반드시 이루어질 일

한줄 요약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었던 것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이다”

연구

바로와 그의 꿈은 미래에 바로와 애굽에 닥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³⁾ 이는 바로의 꿈에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보다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목적하시는 것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당대에 최고의 권력자이며, 신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소유하고 있던 그 어떤 것으로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죄수의 신분이요, 미천한 히브리인이었던 자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그가 세상의 참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일 깨워주는 것입니다.⁴⁾

25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이다’라는 말은 ‘나가드’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해석한 주석에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도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 자신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려고, 바로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풍년과 흉년에 대비하는 맞춤형 대안을 제시해줌으로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애굽에 총리가 되며, 형들이 곡식을 사러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미리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 칠십 명으로 시작된 정착생활이 출애굽 때, 장정만 육십만 명으로 4인 기준으로 이백사십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로 번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킨 것이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나라의 왕이며,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부족중심의 공동체에서 국가를 이룰 만큼 엄청난 단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벨론에 고레스 왕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을 중심으로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 역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관여하시는 대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관자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HOW 창세기 p.412

4) HOW 창세기 p.411

바로에게 두 번의 꿈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두 번보다 더 많이, 더 여러 번, 약속해주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약속이 실체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려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시작점이라고 하면,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제국으로서 더욱 지배권을 강화하고, 나라가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성해진 애굽에서 탈출은 더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사건**이 오늘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바로 같이 권세를 쥔 자들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은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세상에 의해 지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고 뒤로 후진하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밀려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밀려나거나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오히려 그런 작은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대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지음 받고, 부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3. 본문: 창세기 45:1~8절

제목: 하나님의 큰일(2)

대지 1. 애굽에 팔려 먼저 보내짐

2. 후손을 위해 먼저 보내심

한줄 정리: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팔리는 방법으로 먼저 보내셨고, 이는 후손을 보존하시기 위한 큰 그림이다.

연구

요셉이 바로의 꿈에서 본대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 형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와 요셉에게 잘 대접받고 돌아가다가 요셉이 청지기를 시킨 술책에 빠져, 베냐민은 요셉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자 형들은 모두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간곡한 부탁이 4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형들의 모습에 요셉은 울면서 형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며, 자기를 고생시킨 이유도 형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며, 고단하고 억울한 인생이었지만 그로 인해 자기도 훈련받았고, 형들도 훈련받았다는 것으로 행복하게 됩니다.⁵⁾ 45:5절을 보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5) 야곱과 아들들 박영선 p.175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베나민을 지키려는 모습을 통해 자신을 애굽에 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요셉은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소서가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근심, 한탄이라는 말은 **‘스스로에 대해서 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⁶⁾ 요셉은 형들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책이라는 것은 요셉을 노예상에 판 행동에 대한 자책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요셉이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자신이 왜 이런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억울함이 풀리는 장면이고, 형들과의 화해도 자연스럽게 결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인생만 인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목적하는 것을 아주 쉽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여야 하지만, 오히려 요셉은 자기 지위나 힘을 과시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⁷⁾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리신 큰 그림은, 큰일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온 가정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앞서 보내져 준비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 쓰임 받고 있는 것이지, 요셉의 영광의 초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총리가 되기 이전에 요셉의 인생처럼 쉽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이 말을 요셉의 인생에 대입해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과 큰일 속에 인도되어지는 여전히 어려운 현재 진행형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붙들려 우리가 형들과 요셉의 모습처럼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실수와 실패 좌절과 절망에서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더 성숙되고 성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장되어져 간다하여,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하나님 쪽에서 확인시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실망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고 자책하거나, 포기해야지, 낙심하여 그만두네 마네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인생이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

6) 카리스 창세기 6권 p.471

7) 창세기2 NICOT p. 695

서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믿음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되시길 축복합니다.

4. 본문: 출애굽기 3:1~12절

제목: 하나님의 큰일(3)

대지 1. 떨기나무

2. 인도

한줄 요약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로 부르시고, 백성을 인도하게 하신다.”

연구

모세는 지금 팔십 세입니다. 사십년을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의 지원도 없고, 자기 백성들의 신용도 받지 못해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 사십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체념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여주시며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세를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으로 만나주셨을까요, 모세는 자신을 불태워 하나님 편을 들었던 일이 얼마나 무력하고 값없는 일이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오늘 사십 세의 모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은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모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더 번듯하게 신앙생활하고, 더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진심이고 내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누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편을 들어줌으로써 자신의 진심과 열심을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우리의 진심과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 인도하심 복에 거하는 것이 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네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신 의미는, 모세를 방치했다가 이제 필요해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큰일 속에 모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⁸⁾ 모세는 시편 90:1~2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8) 출애굽기 박영선 p.78

모세가 광야 사십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시편 90:10절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은 수고와 슬픔뿐이었으며, 좌절과 절망뿐인 시간이었고, 분노하고, 반발하고, 이내 체념하여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 자체의 능력으로 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탈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백성을 향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처음부터 마지막 완성의 때까지 꺼지지 않는 불로 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열심이 사십년 광야 생활을 매일 매순간 모세의 생각과 현실 속에 간섭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⁹⁾

모세는 쉽게 수궁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 뭐하시고 이렇게 늙고 힘이 없을 때, 찾아오시는지 원망스럽고 억울합니다. 철저한 낭비처럼 보이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에게 맡길 사역과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세월은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¹⁰⁾

이후로 모세는 40년을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열심을 내었던 시간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뜨거웠던 시간이 지나 냉랭한 시간을 보내며 뜨거웠던 시간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의 나에게 다 필요하고 있어야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앞서 주석에서 밝혔던 것처럼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은 큰일을 이루어가실 계획 속에 모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던 것을 형들을 만나 해석되었던 것처럼 지금 모세는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홍해 앞에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라며, 홍해를 가르는 모습 속에 자신의 삶이 왜 이래야만 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것이 이해될 때, 깨달아질 때, 나에게 허락된 고난과 어려움이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환난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뭐가 바뀌겠는가 싶지만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성도님들은 분명한 차이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9) 출애굽기 박영선 p.79

10) HOW 주석 출애굽기 p.158